

광주 제조업 66.4% “신규채용 없다”

2분기 상승서 3분기 체감경기 다시 하락세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원인

2분기 큰 폭으로 상승했던 광주 지역 제조업 체감경기가 3분기(7~9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전체 조사기업의 66.4%는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고용지표도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1~21일 지역 13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3분기 제조업 기업경기 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4'로 나타났다.

BSI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

분기까지 기준치 이하를 맴돌다가 3분기 들어 106으로 반짝 높아졌지만 3분기 들어 다시 19포인트 하락한 '84'를 나타내면서 내리막을 걷게 됐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전 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기준치(100) 이상이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

응답 분포를 보면 3분기 경기가 2분기보다 '악화 될 것으로 전망한 업

체는 33.6%(45개사)로 전분기(24.6%·32개사)보다 증가했다.

반면 '호전 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20.1%(27개사)로 전분기(30.8%·40개사)보다 감소했다. 경기상황이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6.3%(62개사)로 나타났다.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시 위축된 것은 내수 침체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분기에 호전된 완성차 생산이 휴가와 노사임단협 등의 영향으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기업의 가전 발주 불량도 예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별 전망지수는 'IT·전기·전자'(100)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3분기 전망이 기준치(100)를 밑 들었다.

'자동차 부품'(75→89)은 기아자동차의 신차(셀토스) 양산 효과에도 불구하고, 휴가로 인한 조립일수 감소 노사 임단협 리스크 등이 체감경기에 반영됐다.

'기계(123→94)는 미·중간 무역 긴장 지속과 국내 투자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로, '철강·금속가공'(89→69)은 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 침체와 저가 제품과의 경쟁 과다로, '화학·고무·플라스틱'(113→80)은 수주 감소와 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기준치(100)를 넘지 못했다.

'IT·전기·전자'(109→100)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불안과 에어컨을 제외한 다른 가전 제품의 생산이 내수 침체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3분기 경영애로'를 묻는 질문에 63.4%가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매출(수출)부진'을 지목했다. 이어 '임금 상승 등 비용부담 증가(23.1%)', '자금 확보 애로(7.5%)' 순으로 원인을 꼽았다.

이 같은 경영애로를 반영하듯 134개 업체 가운데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3.6%(45개사)에 그친 반면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66.4%(89개사)에 달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기아차의 주력 차종 생산 호전과 신차 양산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다시 위축됐다"면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해져 향후 경영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내외 불안 요인 해소와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으로 내수와 수출이 타격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건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광양항입항

14일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MSC 굴슨(MSC GULSUN)호가 전남 광양항에 첫 입항했다.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스위스 MSC사의 최신 선박인 굴슨(MSC GULSUN)호는 MSC가 삼성중공업에 수주한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인도선박이다.

서은홍 기자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 직격탄 맞은 항공株...반등 언제?

여행 수요 부진 2분기 실적 악화 예상에 日 여행 기피 현상까지 대형항공사보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LCC) 업체 '직격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산됨에 따라 항공주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항공주 주가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항공업계에서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데 반발 감정으로 인한 여행객 수요가 줄어들 경우 기업의 매출에 악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거리 노선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경우 주가 하락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는 반면, 대항공은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이 알려진 이달 초 2만9000원의 주가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지난 12일 2만8600원의 주가로 장을 마감했다. 15일에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몽골 울란바토르 신규 취항 효과로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 이 회사 주가는 7월 1일 5500원에서 지난 12일 6140원으로 경중 뛰었다.

LCC 업체의 주가는 이번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제주항공의 주가는 이달 1일 3만 2950원에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12일 2만8700원까지 떨어졌다. 15일에도 전 거래일보다 450원 내린 2만 82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중이다.

진에어도 같은 기간 2만3000원에서 1만7600원까지 하락했고 티웨이항공은 6640원에서 6070원으로 내려앉았다. 증권가에서는 항공업계 특성상 2분

기가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NH투자증권 정연승 연구원은 "2분기 국내 항공사들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으로 항공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공급 증가가 경쟁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일 관계에 따른 여객 감소 우려도 항공사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케이프증권 홍준기 연구원은 "7월 1일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 논의가 시작되면서 일본 해외여행 심리 악화가 LCC업체들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가 장기화될 경우 LCC 업체들의 주가는 3분기 실적에도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



'순천 금호어울림더파크' 전분주택 주말 2만여명 방문

3.3㎡당 평균 860만원대...오늘부터 특별공급 시작

지난 12일 문을 연 '순천 금호어울림더파크' 전분주택에 주말 3일간 2만여명이 다녀갔다. 순천시 내 20년만에 공급되는 '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로 강청수변공원 앞에 조성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금호산업은 지난 12일 문을 연 '순천 금호어울림더파크' 전분주택에 개관 3일간 2만여명의 내방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순천 금호어울림더파크'는 전남 순천시 서면선평리 85번지 일원에서 지어지며, 지상 최고 16층, 6개동, 총 45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 순천에서 희소한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60만원대로 인근 분양 단지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2회 분납(1차 1,000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60%) 무이자로 진행된다.

청약접수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인 터넷 청약이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며, 당첨자 대상 정액계약은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분양관계자는 "금호건설이 순천시에서 20년만에 선보이는 아파트로 주변 단지보다 저렴한 3.3㎡당 평균 860만원대로 공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며 "강청수변공원 앞에 조성돼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4배이 신형면 등 차별화된 특장설계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전분주택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986-1번지(홀플러스 순천점 옆)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1년 하반기에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우표 발행

전남우정청, 마스코트 수리와 달이 담아 65만 6천장 발행

전남지방우정청은 7월 12일부터 광주시와 전남 여수 일대에서 열리는 '제 18회 2019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우표 65만 6천장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동·하계올림픽,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5대 스포츠 대회 중 하나다.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념우표는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대회 상징(로고) 등을 담았다. '수리'와 '달이'는 무등산



과 영산강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제330호) 수달을 남녀 한 쌍으로 의인화했다. 상징(로고)은 무등산(포근한 품)과 영산강(생명의 숨결)을 형상화한 평화의 불결 속에서 미래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서은홍 기자